함즐함울

즐거워 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 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롬 12:15)

제16호 (격월간)
발행일 1999년 1월
발행처 주님의교회 출판부

(138-220)
서울시 송파구 잠실동 50-4
(정신여중 · 고 교내)
주님의교회
T. 416-5181 F. 416-5180
인터넷 ID : http://www. Lord - church. or. kr

CONTENTS

1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임영수 목사
2
선진 경영과 투명성 / 유기형 집사
의학상식 / 강윤식 집사
3
돼지머리의 고민 / 류달현 집사
4~5
특집 / 새해를 대망하며
6
퀴즈로 생각하는 새해 / 박용천 집사
이 분도 주님의교회
7
교회소식
교우동정
법률상식 / 진만제 집사
8
시 / 이희숙 집사
만화 / 나승훈(소년부)
영화이야기 / 조경옥 집사

목회자 칼럼

다시 목회를 시작하면서

임영수 목사

사랑하는 주님의교회 성도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가 주님의교회를 섬기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청빙해주신 당회원 여러분과 성도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저에게 다시 목회할 수 있는 희망과 의욕, 건강을 주신 하나님께 다시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기간동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희망으로 살아가는 삶, 사랑으로 살아가는 삶, 서로 섬기며 살아가는 삶, 옛것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의 새 옷으로 갈아 입는 삶,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돌보고 관리해 가는 삶을 배워 가려고 합니다.

교회는 기업체나 어떤 영리 기관처럼 사람이 운영해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 받은 무리들의 공동체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행위에 참여해가는 부활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의 주인은 주님이시며 이 공동체를 형성해 가시는 분도 주님이십니다. 이 공동체는 항상 자라야 합니다. 자라되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이르도록'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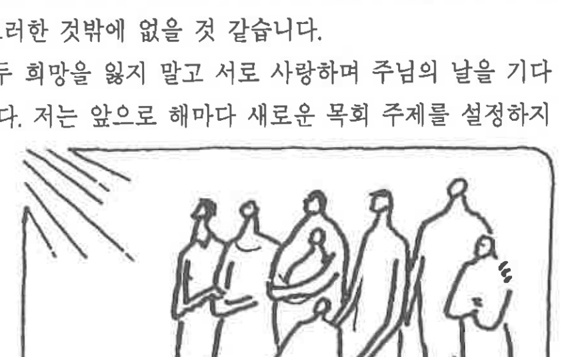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새로운 천년의 새 시대가 열립니다. 우리 앞에 전개되는 새로운 세기는 그렇게 낙관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많은 산업쓰레기, 통제되지 않는 핵폐기물, 오염된 자연환경, 오존층의 파괴, 만성적인 기아, 치료 불가능한 새로운 돌림병, 변화하는 기후, 빙하의 융해, 복제 인간 출현의 가능성 등 너무 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가로 놓여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모든 인류가 공유할 수 있는 희망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성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해답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의 교회, 앞으로의 교회는 이 희망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새 창조의 행위에 참여해 가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배워가야 하겠습니다.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이 세상에 대해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그러한 것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희망을 잃지 말고 서로 사랑하며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해마다 새로운 목회 주제를 설정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내용에 기초해서 여러분과 함께 목회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끝맺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삽화 · 이웅배 집사)

시론

선진 경영과 투명성

유기형 집사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롬 5:3)

외환 위기를 넘긴 지 1년이 지났다.

건국 이래 두 번째 맞는 어려움에 대한 원인과 대책들이 여러 방면으로 검토되고 있다.

특히 미국식 시장경제에 대한 논의가 주류를 이루고 있다. 지난 수세기 동안 현재의 미국같이 경제력과 군사력 그리고 문화면에서 독보적인 우위를 구가한 나라는 없었다. 그러나 80년대의 미국은 일본의 경제력에 속수무책이었으며 저생산성과 쌍둥이 적자에 허덕이고 뉴욕 중심가의 눈에 띄는 빌딩은 모두 일본 기업에 매수 당했다는 한탄이 나왔다.

미국의 경영자는 일본의 종신고용제, 연공서열제, 팀제들이 일본의 경쟁력의 원천이라 평가하고 일본식 경영의 효율화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은 정반대로 역전되었다. 미국 경제는 연 1.9%의 생산성 증가와 3.5%의 성장을 계속하고, 내년에도 약 3% 정도 가까이 성장이 예상된다. 반면 일본의 경제는 장기간 불경기에 금년도 상반기에 2.5%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준다.

미국의 정부 및 기업이 80년대부터 오늘까지 걸어온 경제 회생의 길은 상당히 어려운 결단의 연속이다. 정부는 기업들이 "사업할 맛"을 나게 하기 위해 기업들이 사업이나 인원을 정리하는 데 장애가 되는 제도는 과감히 정리했다. 또한 기업의 생산성 개선을 위해서 환경 관련 규제는 물론 건강관리법과 안전점검법까지 풀었다. 이와 같은 정부 구조조정은 기업들의 구조조정 의욕을 부추김으로써 리스트럭처링과 리엔지니어링 등 기업 수익제고를 위해 가차없이 감량경영을 하는 한편, 지식 경영을 위한 지식 축적에 정부, 학계, 산업이 함께 투자를 하여 91년 이후 연속 장기 호황을 누리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미국 기업이 극적으로 회생한 비결이 풀뿌리 시장 경제에 있다고 한다. 수많은 투자자들이 자본시장에서 직접 투자를 통해 키울 기업과 걸러낼 기업을 가려 내서 경제 체질을 개선시킨 것이다.

예를 들어 97년 미국 기업의 채권 발행액은 GDP의 110%(한국 50%, 일본 75%)이며, 은행 차입은 GDP의 50%(일본 150%)이다. 이는 기업이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비전과 이익 계획 등을 설득하여 자금을 조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나 은행 관계자에게 로비할 필요가 없으며 오직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끊임 없이 구조조정을 실행할 뿐이다. 이러한 경제 구조로 인해 모든 회계 정보의 투명성과 경영정보 공개 제도가 정착되었으며 투자자들을 대표하는 사외이사 제도가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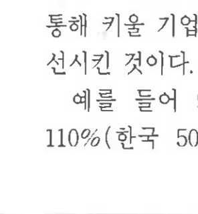
우리의 외환위기가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에서 비롯된 것이라 한다. 이는 정보비대칭이 있는 상황에서 한 경제 주체가 다른 경제 주체에 갈 이익을 갖거나 비용을 전가시키는 행위이며, 이로 인해 최선의 협조와 경쟁이 없어지고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낭비, 비효율을 초래한다. 이런 비효율은 투명성과 정보공개에 관한 제반제도의 미비로 야기된다.

잘못된 제도 때문에 생긴 도덕적 해이는 제도를 올바르게 고치면 제거할 수 있다. 국민의 문화와 의식은 개선된 제도를 실천함으로써 개조할 수 있다. 또한 도덕적 해이의 가능성이 있는 지위를 감시하고 합당한 상벌을 주며, 사회 또는 조직 전체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여야 한다.

구조조정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준비에 불과하다. GE의 경쟁력을 우리는 높게 평가하면서 잭 웰치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노력(TV 사업 부문의 포기 및 대량 종업원 해고, 그리고 핵심 역량의 개발, 미래에 대한 외로운 결단)을 잘 잊는다.

미국 생산성의 1/2인 우리 기업은 자원의 효율적 배분(책무수행 의식)과 관련산업의 경쟁력도 함께 향상시키려는 의식(산업대표 의식)을 가지고 구조조정을 단기간에 완료하고 선진 경영기법(Best practice)을 습득하여 경쟁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우리는 높은 학력과 위기를 극복하는 강한 인내심을 갖고 있다. 기업가의 강한 리더십과 선진 경영방식의 기업경영, 그리고 모든 조직구성원이 한마음이 될 때 우리에게 약속의 땅이 다가온다. 주님 안에서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우리가 되자.

의학상식



치핵의 근치적 치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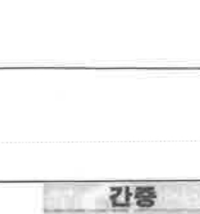
강윤식 집사(외과전문의)

요즘 과장된 선전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비수술적 처치에 대한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치료들은 대개 인프라레드, 울트로이드, 바이폴라, 레이저 등과 같이 멋진 이름을 갖고 있어 듣기에 첨단의 치료인 것 같은 인상을 준다. 또는 실 하나로, 아니면 혈관 하나만 묶으면, 모든 걸 고칠 수 있는 비법인 양 선전을 하기도 한다. 그리고 통증 없이, 입원 없이, 그리고 빠르게 치핵을 고칠 수 있다고 내세운다. 그렇지만 대개는 치료를 받는 분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

치핵을 완치시키기 위해서는 무슨 방법을 쓰든지 매우 세밀하게 치핵을 제거해야 한다. 그런데 치핵을 가장 깨끗이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메스와 수술 가위를 든 숙련된 의사의 손이지 기능이 고정된 유연성이 없는 의료 장비가 아니다. 이것이 바로, 특수한 장비나 획일적 방법들에 의존하는 비수술적 처치가 근치적 치료가 될 수 없는 이유이다. 두툼한 장갑을 낀 손으로는 글씨를 엉성하게 쓸 수밖에 없는 것과 똑같은 이치이다.

치핵의 근치적 치료는 결국 치핵 절제술밖에 없다. 불필요하고 비정상적으로 자라 있는 혈관과 점막으로 이루어진 치핵 조직을 완전히 제거하고 항문을 깨끗하게 정상적으로 만들어 놓아야 재발이 없는 근치 수술이 되는 것이다.

간증



돼지머리의 고민

류달현 집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주시고 나의 모습을 바꾸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먼저 감사 드린다. 나는 주님을 영접하고도 2년 동안은 말씀과 기도와는 전연 상관 없는 삶을 살았다. 1984년 3월, 해외근무를 마치고 귀국하면서부터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삶에 적극 개입하셨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나에게 말씀 듣는 훈련과 성경공부의 기회를 주셨다. 귀국 후 1개월 만에 나는 인천 소재 철구공장에 관리부장으로 임명되었다. 강남에서 인천까지 세 시간 걸려 출퇴근했는데 교통이 몹시 혼잡하여 무척 피곤하고 고되었지만 주님께서는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셨다. 나는 차 속에서 보내는 시간들을 최대한 활용하여 훌륭한 목사님들의 설교 말씀과 은혜로운 신앙 간증, 아름다운 찬양을 열심히 들었다.

이후 이전 교회의 목사님께서 일 년 동안 직접 남전도회원 5, 6명을 위하여 매주 금요일 크로스웨이 성경공부를 지도해 주시어 말씀에 대한 지혜와 지식의 폭을 넓혀 주셨다. 이와 같은 훈련을 통하여 나의 믿음은 성장하여 말씀과 기도의 삶이 습관화되었고 매일 가정예배를 드리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 나는 그때까지 현장관리 책임자로서 술자리를 포함한 모든 회식과 화투놀이 등에 빠지지 않았으나 주님께서 이 모든 세상적인 쾌락을 미련 없이 끊게 해주셨다. 참 나에게는 놀라운 변화였다.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 주신 후 주님께서는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훈련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를 경험하게 하셨다. 공장에 부임한 지 2년 만에 나는 믿음의 직원들과 함께 신우회를 만들게 되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사역지를 옮긴 한 목사님이 우리 신우회를 위하여 5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으시고 열정적으로 헌신해 주셨다. 힘든 오전 작업을 마치고 배고픔을 참고 예배에 참여했던 많은 근로자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그때 은혜로운 장면들이 눈물을 적시게 한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 때로는 억지로 믿지 않는 근로자들을 동원하기도 하였던 모습들이 아직도 기억이 난다.

89년 말 나에게 시련이 닥쳐 왔다. 노조의 격렬한 파업사태 이후 나는 문책성 인사명령을 받아 본사에 대기하게 되었다. 소장이 당해야 할 징계를 대신 지고 나는 현장을 떠나게 되었다. 나의 마음은 무척 착잡하여 찢어지고 상한 심령 그 자체였다. 이 고난을 통해 주님께서는 내가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훈련을 받게 하셨다. 약 4개월 동안 나는 처음으로 성경을 일독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아내와 함께 새벽기도에 나가게 되었다. 고난 당한 것이 네게 유익이라…(시편 119 : 71). 나는 고난을 통하여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새벽기도라는 큰 선물을 받게 되었다. 나와 나의 아내는 회개와 고난과 은혜의 눈물을 통하여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다.

오랜 기다림 끝에 90년 4월, 나는 인도네시아 시멘트 현장의 관리부장으로 발령을 받았다. 나는 8월 부임하였고 1개월만에 현장에서 주일 저녁 예배모임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 그 모임은 믿음의 식구들의 친교를 위해, 또 교회에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마련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그 모임은 김미자, 최재경 집사님 등 많은 여집사님들의 협조로 성장하였으며 훌륭한 전도의 장소가 되었다.

90년 11월 말경, 현장에서 이상한 걱정거리가 발생하였다. 기계 파트에서 예열기 설치 공사를 완료하게 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해당부서에서 안전 기원제를 지내겠다는 것이었다. 안전기원제는 돼지머리 앞에 절하는 의식으로 사고가 나지 않도록 빌고 의식을 마친 후 거창한 회식을 갖는 것이다. 현장의 오랜 관행인 이 문제 때문에 나는 출국 전부터 오랫동안 기도하였다. 막상 이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을 때에는 정말로 아찔하였다. 우리는 함께 주님께 기도하였다. "주님 막아 주세요. 저도 최선을 다하여 기원제가 열리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나는 현장소장을 만나 설득하기 시작하였다. 교회를 다닌 경험이 있는 소장님을 설득하는 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정반대였다. 저와 소장님 사이에 고성까지도 오고 갔으나 소장님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현장의 오래된 관습이기에 어쩔 도리가 없다는 것이다.

"주님 저희 능력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제 주님의 권능으로 막아 주세요. 이번에 이것을 막지 못하면 앞으로 계속 있게 될 수많은 돼지머리를 어떻게 하시렵니까?"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다른 수단이 없었다.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원제 전날을 맞게 되었는데 답답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가? 갑자기 기원제가 취소되었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예열기가 잘못 설치된 것 때문에 기원제가 취소된 것이다. 예열기 설치 작업은 쉬운 작업이었기에 실수의 가능성이 전연 없는 공정이었지만 그들은 실수한 것이다. 이것은 주님만이 아실 일이지만 나는 주님께서 실수하게 만드셨던 것을 확신한다. 주님께서 주님의 방법으로 공사가 완공될 때까지 돼지머리가 보이지 않게 해 주셨다. 하나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어찌 측량할 수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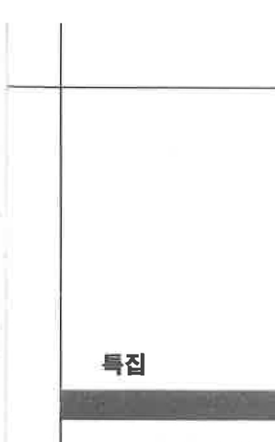
주님은 위대하시다.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울라 에서는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하늘을 향해 다 함께 웃고,
힘든 일도 다 함께 이겨낼 수 있는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원고를 기다립니다.

새 해 를 대 망 하 며

특집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김영숙 집사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 너희를 친구라 하였으니" (요한복음 15:15)

주님의교회의 이재철, 임영수 두 목사님께서 가시고 오시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또한 이재철 목사님의 저서 '회복의 목회'에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는 두 분의 주님의교회를 향하신 여러 생각들을 접하면서, 나는 묘하게도 윤동주 시인의 시에 등장하는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각났다. 두 목사님께서 하신 약속과 원칙에 대한 자세, 처음의 "아니오"를 "예"로 바꾸시는 과정, 그만 하시겠다던 목회를 다시 하시는 일, 설교 목사님에서 담임 목사님이 되어주시는 일 등을 통하여 나는 두 분의 자기 자신을 향한 철저함과 동시에 주님의 뜻을 향하여 항상 열려 있는 두 분의 부드러운 마음을 본 것 같다. 두 분의 모든 결정 사항들의 궁극적인 목표가 주님을 사랑하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에 대한 최선의 배려를 하시며 고뇌하시고, 또한 기꺼이 순종하시는 모습을 보는 것 같다.

이는 아마도 두 분의 관심이 예수님과의 사랑과 인격적인 우정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기 때문일 것이라 생각하며 이러한 삶을 주님 안에서 사시는 두 분 목사님과 가족들이 진심으로 부럽고 존경스럽다. 더 나아가 나는 이 두 분을 제자로, 친구로 삼으신 우리 주님은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감히 표현해본다. 그와 동시에 지금 나 자신을 돌아보며 묻지 않을 수 없다. 아!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누가 나를 보며 나의 삶을 보며 진정 주님의 친구라고 할 것인가? 참으로 부끄러움과 송구스러움이 뜨거운 참회의 눈물 되어 흐른다.

나에게 있어서 예수님과의 친구관계, 또는 예수님께서 행복하실 수 있게 해드린다는 생각 자체는 나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혁명을 요구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옵소서"라는 입에 발린 기도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나의 좋은 친구"를 노래하며 나는 문자 그대로 나의 죄짐을 지시는 고통 속의 예수님, 언제나 내가 원하면 구주요, 보호자요, 공급자요, 고통을 지시는 분으로 생각했으며, 하나님이시니 고통을 지신다 생각하며 자기중심적인 예수님과의 관계에 머물고 있던 것 같다. 주님께서 나로 인해 고통스러우셔서 나는 감사를 드린 것 같다. 오히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다는 많은 분들의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과 인간의 근본적이 차이를 잘 알지 못하는 인간적인 영웅심이라고 비웃기도 하였다.

그러나 묘하게도 1999년의 문턱에서 두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삶의 방향 선택은 나로 하여금 정말 인격적으로 자율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싶다는 뜨거운 열망을 불러 일으켜 주셨다. 아! 나도 냉소적인 신앙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실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며 말이다. 그리하자면 나는 겸손히 주님을 알아가야 하겠다. 기도와 묵상을 통하여 주님의 마음과 관심에 대한 예리함을 키워야 할 것이↗ 다. 또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힘입어 나의 일상에서 말씀의 비밀을 삶으로 실천해야 할 것이다. 정직하게, 겸손하게, 성실하게 말이다.

주님과의 가슴 벅찬 우정으로 사랑으로 나의 삶은 풍요요, 질서요, 자유, 그 자체가 될 것이다.

주님, 오래 기다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 당신의 제자 되게 하소서.

도구로 쓰시는 하나님

심유석 집사

1997년 5월. 미지의 세계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새로운 세상에 대한 약간의 설레임 속에, 그리고 연로하신 시부모님과 친정아버님의 걱정 속에 중국 심양(沈陽)행 비행기에 올랐다. 마음의 불안함을 위로해 주시고 시편 139편의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해주신 목사님, 따뜻한 환송을 하여 주신 구역 식구들과 여선교회 회원들, 친지들을 뒤로 하고 비행기에 몸을 실었지만 마음은 정돈되지 않았다.

난생 처음으로 발을 디딘 중국 땅. 찌뿌듯한 하늘, 퀴퀴한 공기, 정돈되지 않은 거리의 모습과 우중충한 사람들의 모습. 깊은 한숨이 나도 모르게 흘러 나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도착한 내가 살아야 할 아파트의 풍경은 또 한 번 한숨을 토하게 만들었다. 회색 콘크리트 벽에 지저분한 주위 환경, 음식물 찌꺼기들은 사방에 널려 있었고 그로 인한 악취, 여유 있게 배회하는 쥐떼들, 나도 모르게 눈물이 주루룩 흘러나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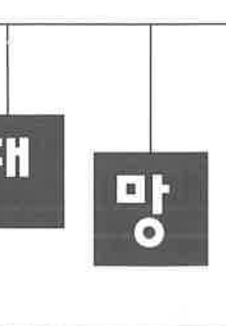
지금까지 온실 속의 화초처럼 평탄하게 살아왔던 나의 삶에 있어서 엄청난 충격이었다. 하룻밤을 뜬눈으로 지새며 많은 생각을 하였다. '예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주님의 크신 뜻이 있으시겠지….' 짐을 대충 정리하고 교회를 찾아 나섰다.

그 교회는 조선족 교회였는데 우리 주님의교회에서 듣던 말씀과는 엄청난 차이를 느꼈다. 주님의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올 때의 가슴 가운데 넘치는 감사와 기쁨을 느낄 수가 없었다. 나는 또다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었다.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밤낮으로 주님께 매달려 기도했다.

1997년 11월, 주님의 뜻이 계셔서 조선족 교회 내에 한국인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 그리고 운영위원과 여선교회 회장직을 맡아 바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말도 서투르고 모든 것이 서툰 중국 땅 심양이지만 주님께 봉사할 수 있는 시간들은 나에게 새로운 평안을 가져다 주었다. 주님의교회를 통하여 많은 것을 배우게 하시고 훈련을 시키신 후에 다른 이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의 크신 뜻과 예비하심을 가슴 깊이 느끼게 되었다.

중국인을 위한 선교, 북한을 위한 선교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실습의 장(場)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께, 그리고 부족한 나를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도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 열심히 살아가고자 한다.

특집



사마리아人은 이제 오지 않는가

이규성 집사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무엇입니까? 무지(無知)입니까?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는 걸 보면 많이 아는 것만이 삶의 질을 좌우하지는 않는가 봅니다. 지식은 단지 방편(方便)이라고 말하는 지식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난입니까? 가난은 다소 불편할 뿐이지 무서워할 것은 못됩니다. 6.25를 겪은 세대들은 그때의 가난이 얼마나 철저했던가를 자주 인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일말의 향수를 가지고 그 시절을 돌아봅니다. 그 시절의 꿈과 희망은 얼마나 단순했으며 생명은 또 얼마나 싱그럽고 강인했는가를. 어떤 책에선가 읽었는데 세계적인 갑부 정주영씨 이야기입니다. 어린 정주영이 신문을 팔고 밤이 늦어 집에 오면 당신의 어머니는 밥 한 그릇을 아랫목에 묻어 놓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두 모자는 서로 밥을 먹었다고 밥 한 그릇을 상대쪽으로 밀면서 다투다가 두 사람 다 굶은 채로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아름다운 잠. 편한 잠… 그때가 가장 행복했었다고 그 부자는 술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것입니까? 호랑이입니까? 모기 때문에 여름이 싫다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힘은 어떻습니까? 힘. 헤라클레스의 힘은 그리스 신화 속에서 뛰어나와 인간의 역사를 담금질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씨름 선수들을 보세요. 힘 썼다 하면 더 큰 힘이 그를 눌러버립니다. 사흘을 못 갑니다. 이만기 선수가 힘 좀 썼는데 중계석에서 본 그의 요즈음 모습은 차라리 '백마강 달밤'이었습니다.

그래서 백화점에 갔습니다. 백화점은 없는 것이 없는 곳이므로 거기서 가장 무서운 것을 볼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人生에서 가장 무서운 것을.

여기까지 쓰다가 나는 갑자기 속이 답답하고 가슴이 막혀오고 울화가 치밀어 더 이상은 쓸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늘어놓으면서 뜸을 들이고 있는가. 그러는 나는 무엇이며 무엇이기를 바라는가….. 참으로 나는 지독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얼마 전 친구가 서울역 역사 이층에 있는 전시실에서 사진전을 가졌습니다. 초겨울인데 비가 추적추적 내렸고, 거기서 나는 서울역을 메우고 있는 노숙자들을 만났습니다. 그 앞 대우 빌딩 지하도에도 가득했습니다. 한 마디로 줄여서 文明은 쓰레기더미. 난지도입니다. 이 난지도에 하루가 저물고 다시 한 해가 시작됩니다.

어떤 사마리아인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부비(浮費)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나는 난지도입니다.

만남과 섬김

조명국 집사

세상에는 수많은 만남이 있다고 합니다. 그 수많은 만남 중에 나와 주님의교회와의 만남은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의교회를 만나기 전에는 교회는 단지 예배 드리는 장소인 줄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의교회를 만나면서 교회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섬김을 실천하는 곳임을 알았습니다.

내가 주님의교회를 처음 다니게 되었을 때 나같이 보잘 것 없는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많은 분들을 보면서 '아, 남을 섬긴다는 게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만약에 그때 형식적인 사랑으로 대했다면 나는 결코 나와 같은 장애인에게 교회에 같이 가자고 말할 수 없었을 것이고 진정으로 남을 섬기는 것도 배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만 모이는 장소가 아니고 가난한 자나 부유한 자나 약한 자나 강한 자나 남녀노소 누구나 가릴 것 없이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곳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 내가 장애를 입고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위함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주님의교회를 다니면서 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아주 엄하시고 자기 말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무서운 벌을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으로만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참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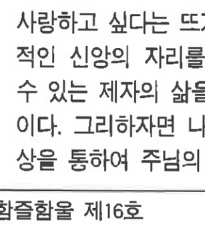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나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의 몸을 내 죄값으로 대신 치루어주신 하나님, 언제나 공정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내가 외롭고 힘들 때 부르짖으면 내게 위로와 평안함을 주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는 것을 항상 느낍니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앞으로 섬김을 실천하는 삶이 되도록 훈련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느끼는 이 평강과 주님의교회에서 받은 보살핌과 관심을, 나보다 작은 자들과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서 돌려드리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감사하는 마음에서 벅찬 희망으로 새 해를 대망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하박국 3:17~18)

꽁트



퀴즈로 생각하는 새해

박용천 집사

아- 후- 안녕하세요? 저는 자칭 우리 주님의교회 여러분의 피스 메이커 박용천입니다~함즐함울에 제가 원고를 낸다니까 지나가시던 우리 교회의 최고 상인이 되시는 집사님께서 "굉장히 기대가 되는군요" 하시더군요. 그러나 여러분 기댈 하덜 마세유 - 마세유가 아니라 "기대를 하시지 마세요잖아!!!" 아이쿵!(퍽!) 정말 그러네유…??!! 하여튼 넘어갑니다.

제1편 / 세상 퀴즈에서 믿음의 지혜를 고찰하시오!

1. 가장 잘 놀라는 새는?
   [illegible] (믿음이 약한 자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으아~악한다)
2. 열매를 가장 잘 따먹는 새는?
   [illegible] (목회자들의 열매만 따먹지 말고 자신의 열매를 맺자)
3.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새는?
   [illegible] (겉 사람이 화려한 것보다는 속 사람을 꽉 채우자)
4. 국을 파는 새는? [illegible]
   국을 파는 성경 인물은? [illegible]
5. 가장 슬기롭게 사는 것은?
   [illegible] (지금 자기의 믿음을 항상 점검하는 사람들)
6. 허리에 눈이 달린 것은 ?
   [illegible] (믿음의 형제, 자매가 어떠한 처지에 있는지를 아는 것)
7. 짧으면서도 긴 척 하는 것은 ?
   [illegible] (서툰 성경 지식으로 자만하는 사람)
8. 가장 멋진 옷을 입고 다니는 물고기는?
   [illegible] (세상이 줄 수 없는 전신갑주를 입자)
9. 무당벌레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illegible] (미혹한 영은 십자가의 권능을 알고 있다)
10. 병든 자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illegible]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11. 에덴동산에서는 할 수 없는 장사는 ?
    [illegible] (자기 몸에 더럽고, 추한 것을 접근시키지 마시오)
12.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일에만 충실한 사람은?
    [illegible]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
13. 셀 수 없이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은?
    [illegible]

제2편 / 당신은 어느 교회에 다니십니까?

1. **주일(週日)만 교회**(주일만 교회에 출석하여 자기의 믿음은 이 정도면 된다는 자만 형)
2. **주 너머 교회**(세상적인 논리로 어떻게 잘해보려고 비비다가 너무 세게 비벼 주님에게 완전히 찍힌 사람들)
3. **주 밖에 교회**(주님을 외면한 채 혹시나, 설마라는 생각으로 자기 마음대로 세상과 타협하는 사람들)
4. **주 위에 교회**(무슨 일이든지 자기부터 먼저 챙기고 나중에 주님께 보고만 하는 형)
5. **주님의 교회**(정직하게, 진실되이, 겸손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식구들)
6. **주옥도록 교회**(가정과 일터, 나아가 사회에 전혀 나 몰라라 하면서 교회에 충성한다는 무지한 믿음형)

여러 성도님들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 ○표를 해 보세요.

그러나 주님은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 남을 섬기는 자세를 배우라고!!!

마지막 이야기는 퀴즈로 마무리를 하고자 합니다.

문제 1) 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꼭 부동자세를 해야 하는 것은 ? - 답 **(정신- 차렷)**

믿음의 정신을 차립시다. 너무나 아쉽다구요??? 그럼 진짜 마지막 문제를 내드리지요

문제 2) 나갈 때에는 천천히 나갔다가 들어갈 때에는 잽싸게 들어가는 것은 ? - 답 **(콧물)**

감기 조심하세요. 랄랄라 - 라

새해에는 이렇게 인사합시다.

환한 웃음으로 "주님의교회를 열심히 다닙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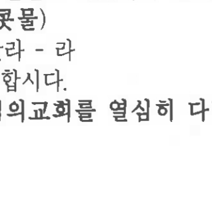
대단히 감싸합니다.

1998년 12월 용인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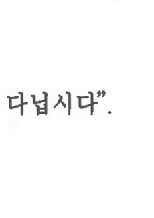
이 분도 주님의교회

새 밀레니엄을 빛낼 수영 꿈나무

-조희연, 좌주희양



조희연 양



좌주희 양

하나. 47구역 조영률 · 김예식 집사 장녀 조희연(대청중 3)양은 97년 처음 수영 국가대표선수로 뽑혔으며 98년 한국신기록 15개의 놀라운 성적을 거둔 신인이다. 원래는 접영으로 시작했으나, 자유형, 접영, 개인혼영 등 모든 종목에 한국신기록을 갖고 있다. 아버지 조 집사는 조정선수 출신이며, 엄마가 허리가 아파 시작한 수영장에 따라 다니며 자질을 보여 수영코치의 발탁으로 이미 6살 때 전국 4개 대회에 최우수 선수로 뽑혔다. 키 171cm, 몸무게 54kg의 다부진 체구의 희연 양은 체육고등학교 특기생으로 내년에 고1이 되며, 좋아하는 음식은 의외로 남자식성인 산낙지도 잘 먹는다고 한다. 98 체육기자 연맹이 주관한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방콕 아시안게임에서도 개인 접영 200m에서 2분 11초 34의 한국신기록으로 최윤희 이래로 첫 금메달을, 개인 혼영 200m에서 2분 15초 95의 한국신기록으로 동메달을 땄다.

조희연 양이 보유하고 있는 한국신기록 - 자유형 50m, 100m, 200m, 접영 50m, 100m, 200m, 개인혼영 200m, 400m, 계영 200m, 400m

둘. 49구역 좌대진 · 최민애 집사 차녀 좌주희(분당 매송초등 5)양은 98년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 국가상비군에 뽑혔다. 아버지는 제주도 출신으로 선천적인 바다 수영과 작살 낚시로 돔 · 문어를 건져 올리는 실력자(?)이며 태어날 때부터 주희양은 탁월한 유연함과 두 다리가 쭉 펴진 몸매로 단 2개월 개인 레슨을 받고 국가상비군으로 뽑힌 신예 유망주이다. 보통은 5년은 걸리는데 시작한 지 16개월 만에 상비군은 전무후무한 일일 것이다. 싱크로나이즈드 스위밍은 수영은 물론이고 음악성, 민첩성, 리듬감 등 복합예술성이 요구되는 몇 배의 노력이 필요한데 천재적 소질로 합숙훈련장에서도 장래 금메달 유망주라고 극찬하고 있다.

교 우 동 정

▶ ***출산***
- 유경철 · 한명선 성도 딸 (33구역)
- 유현숙 집사 딸 (33구역)
- 박종무 · 이필수 성도 아들 (18구역)

▶ ***결혼***
- 이정순 집사 · 이혜자 권사 차녀 숙형
- 이강헌 장로 · 장혜자 권사 딸 은양
- 김용조 집사 딸 희은
- 문창복 장로 · 김은정 권사 장남 경석

▶ ***소천***
- 이건애 집사 부군 (65구역)
- 방치웅 성도 부친 (59구역)
- 김상길 성도(최윤정 집사 부군) (73구역)
- 김윤성 · 홍표옥 집사 모친 (73구역)
- 김윤희 · 김고미 집사 부친 (27구역)
- 백경연 집사 부친 (32구역)
- 민한기 집사(김복희C 집사 부군) (43구역)

▶ ***이사***
- 한병호 · 송숙자 집사(32구역) /
  강남구 신사동 607-17 백조연립 B-202 (548-5218)
- 김진규A · 강정녀 집사(41구역) /
  송파구 잠실동 294-32
- 정일웅 · 양금숙 집사(43구역) /
  광진구 구의동 현대A 601-806 (446-0960)
- 하영종 · 이정례 집사(44구역) /
  중랑구 신내1동 479 중앙하이츠A (439-3918)
- 정해천 · 오세심 집사(44구역) /
  송파구 문정2동 올림픽훼미리A 211-303
- 김충선 · 이혜형 집사(18구역) /
  강남구 포이동 167-4 영창B/D 501호
- 김경빈 · 변아경 집사 /
  강남구 도곡동 우성캐릭터 199 A 2-601 (3462-2201, 2221)

▶ ***출국 · 창업***
- 김종범 · 신혜영 집사 / 한일 국제 아트페스티발 참가 (99. 1. 27~2. 7)
- 김은형 집사(53구역) / G. I. S(지리정보시스템) 연구소 대치동에 오픈 (12. 12)

찾 · 습 · 니 ·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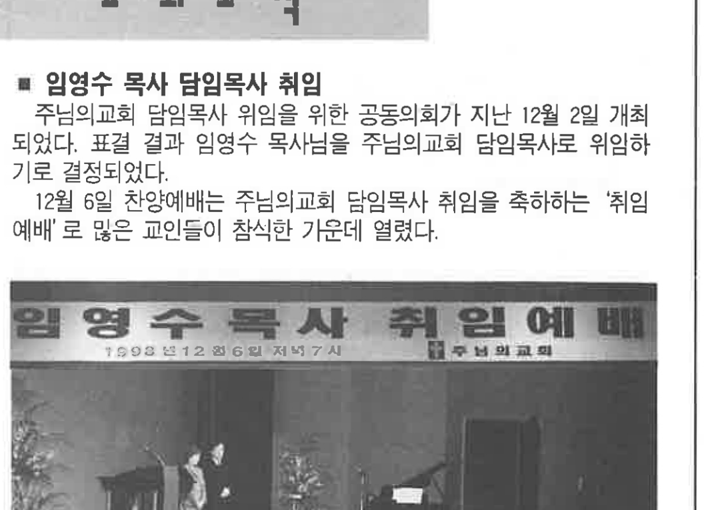
교회학교에 도움을 주실 분들을 찾습니다.
부서에서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 외에 보다 유익한 교회교육을 위한 '프로그램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조금의 특기를 가지신 분들(연극대본구성 · 색종이접기 · 환경장식 · 봉재기술 · 삽화 및 그림자료 만들기 · 율동안무 · 레크레이션 · 컴퓨터 · 피아노 · 지휘분야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교역자실(김효숙 목사)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 회 소 식

■ **임영수 목사 담임목사 취임**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위임을 위한 공동의회가 지난 12월 2일 개최되었다. 표결 결과 임영수 목사님을 주님의교회 담임목사로 위임하기로 결정되었다.

12월 6일 찬양예배는 주님의교회 담임목사 취임을 축하하는 '취임예배'로 많은 교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 **김화수 목사 사임**

김화수 목사님은 1998년 12월 20일부로 6년의 임기를 마치고 사임했다. 김 목사님은 앞으로 뉴질랜드 오클랜드 주님의교회에서 봉사하게 된다.

■ **중등부 한사랑 마을에서 봉사**

중등부 학생 21명과 선생님들은 지난 12월 20일 중증장애인 단체인 한사랑 마을(경기도 광주)을 찾아 봉사하며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초등부 충현복지원 방문**

초등부 학생들과 선생님들은 12월 23일 정신지체인 단체인 충현복지원(서울 중계동)을 방문하였다. 초등부에서는 이날 뮤지컬, 연주, 노래 등을 공연하고, 복지원의 장애인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 **함즐함울 기자 2명 선정**

함즐함울 기자 모집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기자모집에서는 다음과 같이 2명을 선정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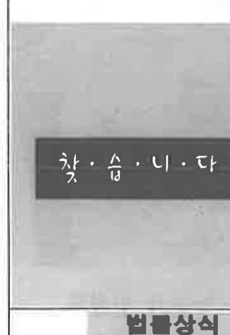
조경옥 집사 · 조재연 자매(청년 2부)

■ **소파 기증하실 분**

대강당 2층의 수련실에 놓을 소파가 필요합니다.

집에서 쓰지 않는 소파가 있으면 기증해주시기 바랍니다.

법률상식



조정이란 어떤 제도인지

진만제 집사(변호사)

조정이란 법원(또는 조정위원회)의 관여하에서 당사자가 분쟁에 관하여 서로 주장을 양보하는 방법으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이다. 요즈음 법원에서는 정식판결을 하기에 앞서 이러한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코자 하는 추세에 있으며 특히 대부분의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사건과 같이 당사자 쌍방의 과실이 경합하여 분쟁이 야기된 것이 명백한 재판의 사건에 대한 경우에는 극히 소수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판결을 하기에 앞서 일단 조정에 회부하여 판사의 조정결정을 받도록 하고 있다.

법원이 이와 같이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당사자들에게도 가능한 한 법원의 조정결정을 받아들이도록 권유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분쟁의 해결을 극단적 대립에 의한 투쟁보다는 당사자들간의 양보와 타협으로 이끌어내고자 하는 데 있으며 나아가 조정에 의한 분쟁해결시는 정식판결의 경우 뒤따르게 되는 무리한 항소나 상고를 억제케 되어 정식판결에 의한 경우보다 사건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다.

한편 법원은 이러한 조정을 할 때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며 판결을 할 때와 같은 방법으로 사실과 증거를 정리한 뒤 양 당사자의 합의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실제의 결정내용은 판결로 한 것과 별 차이가 없다.

이와 같이 조정은 원칙적으로 양 당사자의 합의가 있어야만 이루어지는 것이며 따라서 양 당사자간에 양보가 없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조정은 성립할 수 없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법원은 타당하다고 여기는 경우 직권으로 조정에 가름하는 결정을 하여 강제로 조정을 시킬 수 있다. 이를 강제조정이라고 하며 이러한 강제조정에 대하여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다시 정식재판을 받게 된다.

이상과 같이 소송제기 후 법원에 의해 행해지는 조정 위에 별도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에서 하는 조정이 있는데 이는 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하고 처음부터 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이다. 이 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불만이 있으면 이의신청을 하여 정식재판을 받을 수 있다.

시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삿 5 : 31)

이희숙 집사

새벽 빛같이, 땅을 적시는 비같이
오시는 님이시여, 내 주님이시여

어제보다 지혜로운 눈으로
지난 해보다 겸손한 입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 새해 첫날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한 경고에 얼굴을 돌렸습니다
힌놈의 골짜기에 바알 산당을 세운 이 세대
몰렉의 불에 자녀를 지나가게 하는 정치
교만과 허영의 바벨탑 무너져 무너져, 그 때에도
이 땅은 생명보다 재산수치를 안타까워 했습니다

약육강식 경제 논리 채찍에 찢어지는 육신, 이제는
노숙으로 가족에게 돌아가지 못하는 가장들
대물림 빚잔치에 점점 멀어지는 남과 북의 노부모
불 앞에 밀초처럼 녹아내리는 무릎을 보시옵소서
낙담으로 까맣게 타는 젊은 심령들을 살피옵소서

선악과를 따먹은 노동의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였습니다
이제 다시, 유전자 조작, 복제두뇌로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으려나, 두렵습니다
주님, 얼굴을 저희에게서 돌리지 마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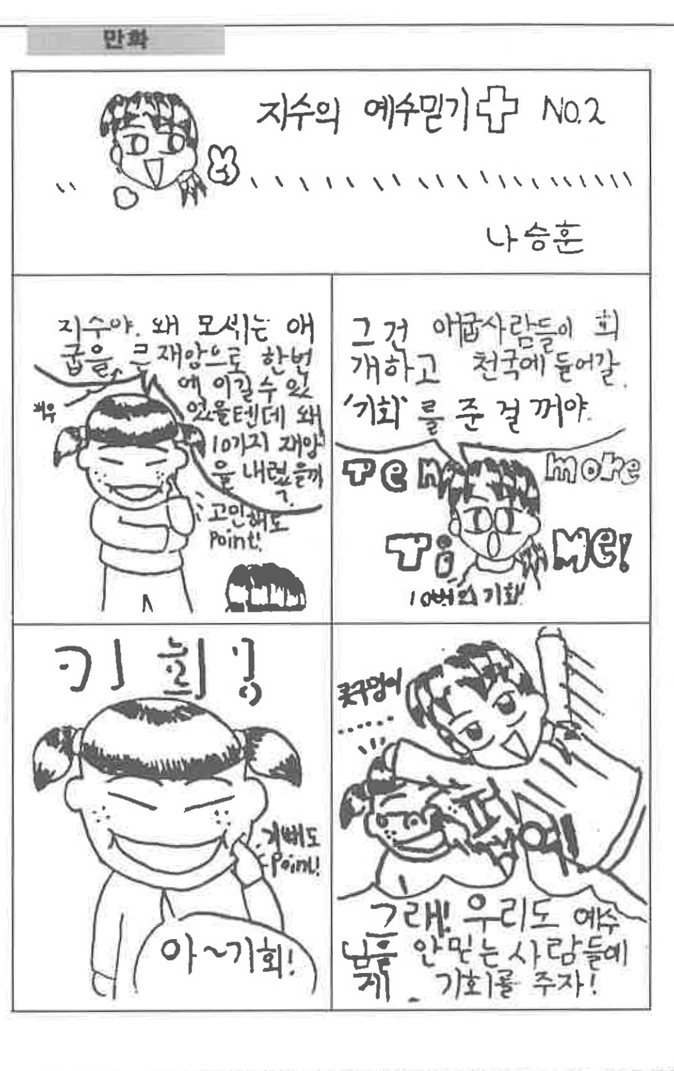
장막을 펴고 또다시 거두어 길 떠나는 겨울
나그네 곤고함을 아파하사, 세워주신 기도의 처소
만민을 위한 기도의 집, 만인이 기도하는 집
아무리 걸어도, 아무리 뛰어도 피로하지 않을 기도
통회하며 릴레이 중보기도 이곳에서 쉬지 않을 때

고난 받음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오늘도
무지개 약속 구름 위에 세우시는 님이시여
주님 인애로 안아주소서, 고단한 이 땅 어깨를
연약한 뼈를 일으켜 세우사, 기도의 힘을 주소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 새 소망 찬양하게 하소서

주님의교회 두 번째 10년 열리는 첫해 첫 시간
주님 안에서 님의 백성 실존을 보여주소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일지라,
이 땅에 에덴 회복할지라,
새 천년 주의 나라 평강 펼칠지라

새벽 빛같이, 마른 가슴에 단비같이 내리는
님의 음성, 해가 힘있게 돋음같이 하시옵소서

만화


지수의 예수믿기 No.2
나승훈
지수야. 왜 모세는 애굽을 큰 재앙으로 한번에 이길수 있었을텐데 왜 10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고민해도 Point!
그건 애굽사람들이 회개하고 천국에 들어갈 '기회'를 준 걸꺼야.
Ten more time!
10번의 기회!
기회!
아~기회!
귀여워도 Point!
꾸벅꾸벅
그래! 우리도 예수 안믿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자!

영화 이야기

아름다운 시절

'가장 한국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이다'라고 누군가 말했듯이 영화 '아름다운 시절'은 박해 받았던 우리의 침울한 향수와 애환을 명상적인 은밀한 분위기로 가장 한국적으로 표상화하는 솜씨를 보였다. 헐리우드 영화의 폭력물에 길들여진 우리에게 원초적인 경험과 깨달음을 주는 이 영화는 영문학을 전공한 젊은 이광모 감독(37세)이 11년 만에 완성한 작품이다. 외국에서 수입한 모더니즘에 그저 맹신하지 않고 전통적 유산을 수채화처럼 처리한, 흔치 않은 자질과 구도자적인 영감을 가진 신인임에 틀림없다. '에비타'처럼 배우가 직접 설명하는 대신 스크린을 자막과 사건일지로 처리한 것은 집중력의 몰입으로 작품의 심장부로 끌려 들어가도록 이끌어주는 길을 제공해 주었다. 아버지(안성기 분)의 고요와 평온이 깃들인 탁월한 연기 또한 감독의 고전적 내러티브(narrative)를 절묘한 화면에 담아 작품을 더욱 빛내주었다. 국제영화제에서 많은 상을 수상했고 일본에서도 상영될 예정이란다. 참으로 오랜만의 수작(秀作)이었다(조경옥 집사).